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양관리 요령 전파 확대
- 지자체·농민청·농협 등을 통해 취약농가 점검, 시설·장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축산분야 폭염 피해 상황>

7월 27일 장마가 종료된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어제(7월 31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21만6천마리(닭 19만9천마리, 돼지 1만5천마리 등)가 발생하였으나,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나,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 7.30. 기준 올해 폭염일수 6.5일(평년 4.6일, 1.9일↑), 열대야일수 8.2일(평년 2.7일, 5.5일↑) 발생

<폭염 대응 추진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긴급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 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장비가 고장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단(5개반, 46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농가에게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농협과 계열업체에서도 폭염 피해 최소화와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고온에 취약한, 닭, 돼지 등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온도관리 철저, 충분한 음수 제공 등 사양관리 요령에 따라 가축의 건강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 신고 현황(7.31. 기준)

| | | | | | |
|---------------|-------|-----|-----|-----|----------------|
| 담당 부서 <축산> | 축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강동윤 | (044-201-2311) |
| | 축산정책과 | | 서기관 | 이상훈 | (044-201-2317) |



붙임1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 신고 현황(7.31. 기준)

(단위: 건, 마리)

| 지역 | 합계 | | 돼지 | | 가금 | |
|-----------|--------------|----------------|------------|---------------|------------|----------------|
| | 신고건수 | 두수(추정) | 신고건수 | 신고두수(추정) | 신고건수 | 두수(추정) |
| 경기 | 153 | 17,959 | 125 | 1,177 | 28 | 16,782 |
| 강원 | 18 | 5,972 | 16 | 572 | 2 | 5,400 |
| 충북 | 21 | 39,159 | 7 | 40 | 14 | 39,119 |
| 충남 | 215 | 47,175 | 176 | 2,552 | 39 | 44,623 |
| 전북 | 174 | 44,022 | 126 | 2,332 | 48 | 41,690 |
| 전남 | 76 | 31,233 | 55 | 892 | 21 | 30,341 |
| 경북 | 149 | 12,667 | 145 | 3,481 | 4 | 9,186 |
| 경남 | 165 | 14,158 | 157 | 3,230 | 8 | 10,928 |
| 제주 | 24 | 835 | 23 | 835 | 1 | - |
| 부산 | 1 | 13 | 1 | 13 | - | - |
| 대구 | 18 | 56 | 17 | 56 | 1 | - |
| 인천 | 1 | 2,400 | - | - | 1 | 2,400 |
| 광주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울산 | 1 | 7 | 1 | 7 | - | - |
| 세종 | 9 | 153 | 9 | 153 | - | - |
| 합계 | 1,025 | 215,809 | 858 | 15,340 | 167 | 200,469 |

* 피해 조사 진행에 따라 가축 폐사수는 변경될 수 있음

고온에 의한 가축 피해



| 구분 | 한·육우 | 젓소 | 돼지 | 닭 |
|-----------|--------|------|-------|-------|
| 알맞은 온도 | 10~20℃ | 5~20 | 15~25 | 16~24 |
| 고온피해 시작온도 | 30 | 27 | 27 | 30 |

고온 피해는 시원한 환경으로 극복

- 환경온도 낮추기 : 송풍팬 가동,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적정 사육두수 유지
- 정기적인 대비로 농장주변에 활엽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 줌
- 사료 섭취량 늘리기 : 소량씩 자주 먹이기, 시원할 때 사료주기, 신선한 물 공급
- 위생 관리 : 농장 안과 밖 정기적 소독 실시, 방역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국립축산과학원 축사온 누리집(chuksaro.nias.go.kr)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축종별 가축 더위지수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 제공

· 더위지수 : 온도와 습도를 활용해 가축이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값

| 구분 | 양호 | 주의 | 경고 | 위험 | 폐사 |
|----|-------|-------|-------|-------|-------|
| 소 | 72 미만 | 76 미만 | 89 미만 | 98 미만 | 98 이상 |
| 돼지 | 64 미만 | 73 미만 | 83 미만 | 93 미만 | 93 이상 |
| 닭 | 63 미만 | 73 미만 | 80 미만 | 91 미만 | 91 이상 |



깨끗한 물통



차광막 설치



위생적인 돈사관리



지붕위 물뿌리기



송풍팬 가동



공랭패드



소

-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환경온도를 낮추어 줌
-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 실시
- **안개분무와 송풍팬을 함께 활용**하여 물의 기화열을 이용해 온도를 낮춤
- 물통은 자주 청소해주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사료는 소량씩 급여하여 **급여횟수를 늘려주고** 사료조는 **자주 청소**
- 풀사료는 5~10cm 정도로 썰어주고 **벚짚보다는 질이 좋은 풀사료** 급여
-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구입하고 건조하게 보관
-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함
- 갑작스런 호우에 대비하여 축사주변, 운동장, 초지·사료포 등의 배수로 정비



돼지

- **지붕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물 뿌려주기** 등으로 온사 온도 상승을 막음
- **충분한 환기**로 체감온도를 낮추고 냉풍기, 안개분무 등을 설치하여 필요 시 가동
- **신선한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기의 수압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사료급여 횟수를 늘려줌
- 변질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입함
- 돈방당 사육 두수를 알맞게 하여 **적정 밀도를 유지함**(비육돈 1두/㎡)
- 돼지의 출하 및 이동 등은 가급적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실시함
- **사료통을 자주 청소**하여 사료내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함



닭·오리

- 단열이 부족한 계사/오리사 등에는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온도 상승 방지함**
- 원치커튼 계사는 햇빛의 계사내 유입 방지를 위해 서쪽에 그늘막 설치함
- 무더운 한낮에는 **지붕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 유입을 방지**
- 환기는 자연환기보다는 **환풍기로 강제통풍**을 함
-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배합사료를 오래 보관하면 변질되기 쉬우므로 적은 양을 자주 구입
- **비타민C 및 갈슘 보충** 급여로 고온 스트레스 감소와 연관 방지
- 환기팬의 먼지, 거미줄 등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